

조경의 경계를 넘어, 조경 속으로

루이 비네쉬
루이 비네쉬 페이지지스트 대표

글 최이규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뉴욕지소장

10



Louis Benech

LOUIS BENECH
PAYSAGISTE

이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인터뷰어 최이규는 1976년 부산 생으로,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뉴욕 오피스를 이끌며 10여 차례의 해외 공모전에서 우승했고, 주요 작업을 뉴욕시립미술관 및 소호, 센트럴파크, 두바이, 올랜도, 런던, 워니펙 등지의 갤러리에 전시해 왔다.

©Eric Sonder



©Eric Sonder

화려한 로코코 양식을 보여주는 수비즈 궁전의 입구 정원. 프랑스혁명(1789) 당시 이 건물은 프랑스 국립 공문서 보관소로 쓰였으며 현재는 국립고문서관 겸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1년 루이 비네쉬가 수비즈 궁전의 입구 정원을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조경 설계에 문외한이 아니더라도, 베르사유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파리 근교, 조그만 전원 마을인 베르사유에 도착하면 그 한가한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생경하게 서 있는 궁전과 정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입장 차례를 기다리는 과정은 인내심을 요하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궁정 생활에 대한 몽환적 상상은 까다로운 관람 규정으로 증발되어 버린다. 화려하지만 구석 구석 슬픔이 배어있는 금빛 가득한 방들을 지나 드디어 만나게 되는 정원 또한 기대만큼 화려하지도, 예쁘지도 않다. 항공사진으로만 보던 회화적인 자수 화단도 발치 가까이에 놓여있으니 그리 대단하지도 않고 조금 유치하기까지 하다. 그저 커다랗지만 한 분수들은 영광스럽기보다는 낯아서 안쓰럽고 황량한 느낌이

다. 이곳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인공은 회색빛 허공을 배회하는 프랑스의 햇빛이다. 휴먼 스케일을 넘어 극단적으로 인위적이고 장식적인 베르사유의 공간 구성은 자연을 인간의 통치 아래로 복속하려는 어리석고 실패한 시도로 느껴지기도 한다. 한껏 부풀었던 기대와 달리 사뭇 실망스럽다. 화려하지만 애정 어린 손길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차가운 공간에서 살아야만 했던 프랑스 왕족들의 광기도 사뭇 이해할 만하다. 복약과 인양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아끼지기한 우리 궁궐 정원의 자연스럽고 간결한 아름다움이 새삼 그리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정원이 그렇듯, 위대한 정원이란 당대의 시대상을 아낌없이 구현하는 공간이다. 베르사유는 17세기 절대 왕정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프랑스의

고전주의 양식을 대표한다. 그중에서도 정원은 그저 건물의 배경이 아니라 공간 계획의 핵심이었다. '루이 14세'라는 인물을 고려하지 않고 형태적인 측면에서만 베르사유를 분석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상당한 착오를 낳는다. 베르사유는 단순히 당시에 축적된 잉여적 부를 과시하는 궁궐과 정원 프로젝트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근거를 두고 진행된 프랑스식 행정 복합 신도시였기 때문이다.

종종 오해받는 것처럼 베르사유는 프랑스 왕가의 별장이 아니다. 루이 14세는 왕정의 통치 체제뿐만 아니라 모든 귀족 사회와 관료 집단을 루브르에서 베르사유로 옮겨왔다. 베르사유에는 그가 꿈꾸던 '새로운 국가, 프랑스'에 대한 신념과 중앙집권적 표상, 무엇보다도 '프랑스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사상이 담겨 있다. 17세기 중반만 해도 유럽의 문화적 중심은 이탈리아였다.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부와 군사력

을 보유한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예술과 문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탈리아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루이는 프랑스의 패션과 예술, 건축을 보호하고 장려해 독자적인 문화적 전통을 구축하려 했고 베르사유는 그 전적인 수단이었다. 건축사가 빈센트 스컬리(Vincent Scully)가 지적했듯, 경사와 비탈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이탈리아 정원과 달리 베르사유는 일드 프랑스(Île-de-France)의 대평원에



프랑스 로레인 지방의 팡제 저택(Château de Pange) 정원. 대상지에 대한 여러 역사적인 문헌을 참고해 18세기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현대적인 쓰임에도 적합하게 디자인했다.

'꿈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모로코의 요새, 다르 아흘람(Dar Ahlam). 루이 비네쉬는 이곳의 전통 관개 농업 수로를 이용해 채원과 정원이 결합된 현대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Agence Louis Benech

건설된 프랑스식 정원이다. 또한 평생 영토 확장 전쟁으로 보낸 루이의 자랑스러운 군대와 프랑스 영토를 표현한 추상화이며,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순수한 르네상스적 아이디어에서 영향을 받은 앙드레 르 노트르(André Le Nôtre)의 손길이 느껴지는 곳이다. 절반을 차지하는 하늘 또한 르 노트르가 의도한 바였다. 망사르(Jules Hardouin-M. Mansart)의 '거울의 방'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루이 14세의 상징성을 표현한 것처럼 태양을 자처했던 루이 14세가 깃들 수 있는 끝없는 하늘과 무한히 뻗은 지평선의 정원은 더없이 어울리는 설계였다. 휴먼 스케일을 벗어나는 계획의 성격 또한 자신에 대한 초월적 기준을 세우고 왕으로서 초인적 면모를 구축하려 했던 루이의 의지가 정확히 반영된 결과였다. 루이는 매일 세 차례의 사냥, 세 차례의 관료회의, 세 차례의 성관계를 철칙으로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베르사유 또한 그가 새롭게 이룩하려 한 프랑스적 격식과 이지적이고 복잡한 문화 예식의 3차원적 구현이었다. 다시 말해 베르사유는 프랑스의 국가적 기강과 문화적 기풍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었다. 베르사유의 입구인 군사 광장(Place d'Armes)에는 세종대왕이나 링컨처럼 옥좌에 앉은 통치자가 아니라 말을 타고 돌격을 외치는 루이의 기마상이 서있다. 베르사유는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현대적 개발 방식의 시초가 되었다고 할 만하다. 베르사유는 루이 14세의 꿈을 실현할 중앙 정치 무대가 되어야 했기에 늪지대가 아름다운 숲과 정원으로 바뀔 때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릴 수 없었다. 루이는 빠른 결과를 원했으며, 르 노트르는 프랑스 전 국토에서 장대한 수목을 구해 성목을 이식함으로써 깜짝 놀랄만한 경관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만큼 베르사유는 빠르게 건설되었고 또 빠르게 파괴되었다. 프랑스혁명의 혼란을 거치며 황폐화의 길을 걷던 정원은 근 200년간 복원의 대상이었다. 루이 14세와 르 노트르가 세웠던 비전을 해석하고 이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일이 베르사유의 임무로 전승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관점에 변화가 시작했다. 폭풍 피해로 훼손된 '물의 극장이 있는 숲(Le

Bosquet du Théâtre d'Eau) 정원의 재조성 과정에서 원형 중심의 역사적 복원이 아니라 베르사유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도입한 것이다. 이 역사적인 과업을 맡은 조경가가 프랑스의 정원사, 루이 비네쉬다. 역사와 전통의 층이 겹겹이 축적된 베르사유를 해석하고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정원에 담는 작업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다. 내년 봄에 선보일 비네쉬의 정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무척 궁금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작품 또한 베르사유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해석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엄격한 격식과 초월적 이상을 표현한 베르사유의 중앙 축과 대비되는 숲속 정원들은 파티와 공연의 무대가 된 그야말로 자유와 환상의 세계였다. 2011년 공모전에 당선된 비네쉬가 1674년 르 노트르가 설계한 물의 극장을 재조성하게 되었다. 루이 비네쉬는 법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모목장의 견습생으로 다시 출발하며 정원사의 길을 걸었다. 그는 프랑스 곳곳의 대규모 저택 정원과 성채, 전통 경관을 디자인하며 르 노트르 이후 베르사유 최초의 독창적 정원을 선보일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특히 1990년대 미테랑 대통령의 그랑 루브르(Grand Louvre)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툴리리 정원(Jardin des Tuileries)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비네쉬는 서울의 메종 에르메스 도산파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Q & A

Q. 당신은 프랑스가 아닌 영국의 묘목장에서 일하며 가드너 교육을 받았다. 영국식 가드닝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것인가? 가드너로서의 형성기에 대해 회고한다면?

A. 일반적으로 영국인이 프랑스인에 비해 정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다고 보았기 때문에 영국행을 택했다. 프랑스는 정원에 관해서는 영국에 대해 상당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아마 영국인들이 프랑스의 음식 문화에 대해 느끼는 콤플렉스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점은 알고 보면 영국에도 빼어난 요리들이 많지만 단지 그에 걸맞은 명성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정원 문화도 깊이 존경하지만 알고 보면 프랑스에서도 훌륭한 작업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영국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힐리어 너서리 Hillier Nurseries라는 훌륭한 기업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일할 수 있었기에 정말 큰 행운이었다.

Q.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후 정원으로 진로를 바꾸기 힘들지 않았나?

A. 사실 나에게서는 매우 쉬운 결정이었다. 내가 어릴 적에 자란 곳은 나무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바람이 많이 부는 황량한 곳이었다—루이 비네쉬는 일드레(Île de Ré)라는 대서양 연안의 섬에서 자랐다. 그래서 가끔 육지에 나올 때마다 거의 이성을 잃고 나무에 탐닉했다. 나는 매우 어릴 때부터 나무가 많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 조금 나이를 먹은 후에는 프랑스에서 목재와 임업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물과 숲을 다루는 엔지니어 Ingénieur des eaux et forêt'라고 부른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선택할 때 엔지니어가 되려면 기술 전문학교나 광업 학교 École des Mines로 진학해야 한다. 혹은 농업 분야로 가려면 프랑스 고등 농업학교 Institut Supérieure Agronomique가 최상의 코스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고성들로 유명한 루아르 계곡의 솔로뉴 유적(Property in Sologne). 루이 비네쉬는 물이 풍부한 대성지의 특성을 살려 현대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형태의 수로를 디자인했다.



© Eric Sander



© Eric Sander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속 배경인 항구 도시 카부르에 있는 노르만 정원(Norman Garden). 루이 비네쉬는 도시의 정취와 어울리는 낭만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물리학에 상당한 재능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철학과 국어 그리고 기타 과목들은 모두 잘했지만 정작 필수적인 두 과목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엔지니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준비학교 écoles préparatoires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학과 물리학 성적 탓에 전국 어디에도 나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단 법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된 후에도 법은 어려므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이다. 내가 법대로 진학하게 된 유일한 이유다. 말하자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제하다 보니 남게 된 차선택이었다. 졸업할 때까지 모든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는 나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나의 꿈이 실망스럽다면 마음을 바꿔 다시 법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다. 실제로 나는 졸업 후에 화초와 나무의 길로 돌아갔다. 첫사랑은 나무였지만 사실 난 모든 종류의 식물에 깊은 애정이 있다. 일년생과 이년생, 초본류와 관목 등 가리지 않았다. 내가 정원 일을 하게 된 과정은 이처럼 단순했다. 나는 예나 다름없이 철들지 않았고 childish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Q. 베르사유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르사유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정작 드물

다. 당신이 생각하는 베르사유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물의 극장이 있는 숲'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려 달라.

A.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는 극도의 정치적 혼란기였다. 그는 귀족들을 모두 베르사유로 불러들여 구조를 재편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궁궐이 거대한 것이다. 또한 루이는 왕의 자리란 신이 내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한 연유로 베르사유의 거의 모든 것은 가톨릭이라는 종교와 기묘한 관계에 있다. 그 외에는 고대 그리스의 신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르 노트르는 베르사유 정원을 설계하면서 수많은 상징을 삽입했다. 한편으로 루이는 자신을 태양에 비유했기에 베르사유에는 고대의 태양신 아폴로와 연관된 장소가 많다. 중심축에 놓인 못이 바로 아폴로의 분수이며, 그곳에 이르기 전에 놓인 못은 아폴로의 어머니인 라토나의 분수 Le bassin de Latone다. 베르사유의 모든 장소에는 의미가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장대함과 화려함을 느끼지만 규모나 인상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없다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의미가 함축된 곳이 베르사유다. 르 노트르가 베르사유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는 왕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요구나 명령을 받지 않았다. 그는 왕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의 훌륭한 신하가 되고자 하는 생각뿐이었다. 단, '물의 극장이 있는 숲'의 경우에는 루이 14

세의 선호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루이 14세는 야외 파티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집은 이곳에 물의 극장을 원하노라.” 즉, 이곳은 루이가 자신의 뜻을 확연히 밝힌 곳 중 하나다. 나는 이곳을 재조성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생각을 모두 버렸다. 단순히 물의 극장이 있었던 곳에 말 그대로의 ‘물의 극장’을 만들자고 생각했다. 나는 물에 대한 경험에서 느끼는 기쁨을 발견해내고 싶었고 세부적인 역사적 사실을 일일이 표현하는 것을 삼갔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이지 그것에 부여된 의미가 아니다. 물론 베르사유를 무대로 작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사투 두려운 일이다. 나는 내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상당 부분 르 노트르가 일했던 조건과 닮아있다. 그는 언제나 친구나 동료 예술가와 함께 작업했고 결코 혼자 일하는 법이 없었다. 나 또한 이 프로젝트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꼭 찾기를 원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당시 루이는 르 노트르에게 어린 시절을 환기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단순한 질문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원래 캐스케이드가 놓여있을 당시 상부에 위치했던 세 분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 분수에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한 신들이 조각되어 있었고 캐스케이드 아래 쪽 분수에는 놀고 있는 아이들이 표현되어 있었다. 르 노트르 사후에 추가로 조성된 분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분수의 명칭은 ‘금박을 입힌 아이들의 못 Le Bassin des Enfants Dorés’이다. 그 곳은 변경 없이 복원만 진행하고 있다.

나는 ‘물의 극장이 있는 숲’에 대한 이미지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원래 이곳에는 세 개의 캐스케이드뿐만 아니라 중심이 되는 수 공간에 아홉 개의 분수 물줄기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공간은 극장의 기능을 했다. 무대와 객석을 이루는 ‘룸room’이 있었고 레벨이 다른 이들 사이에는 ‘식탁보la nappe’라 불리는 긴 형태의 분수가 있었다. 룸은 18개의 아케이드로 위요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아케이드 하부에도 분수가 있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곳의 모든 요소들은 3의 배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3의 배수를 이용해 새로운 요소들을 구성했다. 이처럼 베르사유에는 디자인을 돕는 갖가지 트릭이 숨어있다.

나의 협력자인 아티스트 장-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의 작업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추상적이지 않다. 그는 이 시대의 예술가지만 전혀 도발적이지 않다. 내가 그를 파트너로 택한 이유는 그가 연령과 세대를 막론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

는 방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이다. 장-미셸은 놀라울 만큼 기발한 방식으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루이 14세가 남긴 베르사유 감상법—격식과 과정을 중시했던 루이 14세는 베르사유를 보는 순서와 과정을 대한 지침을 남겼다—을 분석하고 그것이 하나의 안무choreography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 발자국을 댄 후, 왼쪽으로 돈다’ 같은 식이다. 장-미셸은 루이 14세가 배웠던 춤에 관한 문헌을 찾아냈는데 거기에는 발을 딛는 순서에 대한 해설이 매우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그 드로잉을 바탕으로 분수의 형태를 발전시켰다. 특히 내가 기뻐한 것은 그가 루이를 이 공간의 주제로 끌어들이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신화가 고대의 신뿐만 아니라 루이와 르 노트르, 르 브렁Vigée Le Brun, 르 포트르Jean Le Pautre 등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Q. 킬리리 정원과 베르사유, 두 곳 모두 르 노트르의 작품이며 당신은 이 두 곳을 개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르 노트르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할 만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는 어떤 인물인가? 그의 디자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A. 르 노트르에 대해 평가하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많은 면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던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재밌는 것은 당신은 르 노트르와 프랑스 정원이 모두 ‘기하학’과 ‘제어’에 관한 것이라 지적했는데 ‘제어’의 측면은 절대적으로 옳지만 ‘기하학’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 않다. 르 노트르의 몇몇 도면을 관찰해보면 그는 때로 무척이나 몽상적이고 격렬하며 전혀 기하학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가 디자인한 ‘보스케 데 소스Bosquet des sources’라 불리는 수림은 말 그대로 ‘생물의 숲’으로서 수많은 작은 연못으로 구성되었고 그들 중 어느 하나도 기하학적 형태를 띠는 것이 없다. 르 노트르는 여러 가지 방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이야기하면서 ‘대칭’에 대해 말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균형 있는 것이지 반드시 대칭적인 것은 아니다. 그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의 작업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다. 그의 디자인 방식은 놀라울 만큼 흥미롭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르 노트르의 작업에 비견해 견줄만한 참고 사례가 없다. 규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베르사유의 아주 작은 부분을 맡아 일할 뿐이며 그런 거대한 공간은 나의 경험 밖이다. 그 누구도 당시에 이루어졌던 규모의 정원을 맡는 사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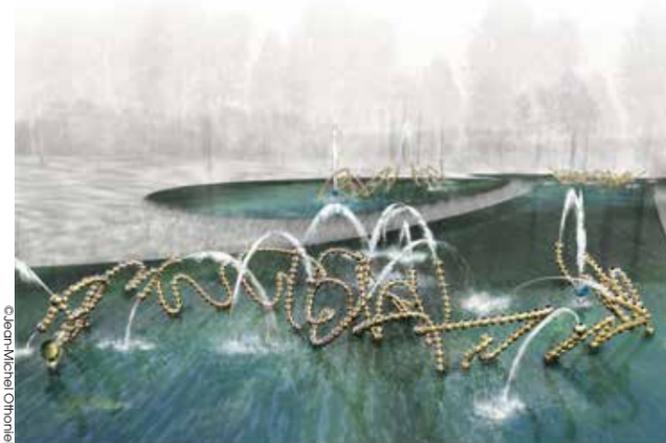


베르사유궁 외곽의 정원인 ‘물의 극장이 있는 숲’ 대상지. 캐스케이드와 중앙 분수가 있는 루이 14세의 야외 파티장이었지만 1999년 태풍으로 인해 황폐화되었다. 2011년 루이 비네쉬가 이 정원을 재조성하는 공모전에 당선되어 작업 중이다. (출처: Wikimedia Commons)



‘물의 극장이 있는 숲’ 마스터플랜

‘물의 극장이 있는 숲’ 재조성 프로젝트에 루이 비네쉬와 파트너로 참여하는 아티스트 장-미셸 오토니엘의 조형물 드로잉. ‘아름다운 춤(les Belles Danses)’이라는 이름의 이 작품은 분수에 역동성을 더한다.



©Jean-Michel Othoniel

베르사유 일을 맡으면서 베르사유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어쩔 수 없이 머리에 입력해야 했다. 이전에 내가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주로 이치적인 사고 intellectual input보다는 눈을 통해 작업해 왔다. 내 스타일은 개념적이기 보다는 말하자면 상황적이라 할 수 있다. 베르사유 이외의 프로젝트에서 내가 중시하는 것은 장소의 상황과 환경, 기후적 조건에 맞는 디자인이다. 멋진 것을 감추고 좋은 것은 드러내려 애쓴다. 물론 정원 디자인이란 클라이언트의 성격과 합치해야 하고 건물 디자인과 일맥상통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떠한 지적인 문제보다 장소의 상황에 응답하는 데 신경을 집중한다. 하지만 베르사유 프로젝트의 경우는 좀 다르다. 디자인하는 베르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Q. 앵발리드Hôtel des Invalides의 옥상 테라스 프로젝트를 가리켜, 당신은 정원이 아니라 장식이라고 말했다. 정원과 장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원은 장식과 달라야 하는가?

A. 건물의 테라스 작업을 할 때 나는 정원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정원이란 인간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극히 인공적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원의 모습이란 충분한 토양이 있어서 뿌리가 스스로 필요한 만큼 깊게 자랄 수 있고 수목 또한 정상적인 방식으로 커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정원이란 인공적이지만 동시에 자연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연적’이어야 한다. 반면 테라스 프로젝

트란 대개 화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과도하게 전정되는 일본식 분재와 같다고 본다. 과도한 개입이다.

화분에 나무를 심고 마치 자연에 고목이 있는 것처럼 연출한다는 발상은 나의 방식에 맞지 않는다. 테라스에 대한 작업과 화분을 통한 분재는 그래서 일맥상통한다. 내가 정원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정원을 통해 볼 수 있는 자연의 이미지에 대한 사랑이다. 나는 가능하면 정원의 모든 생물이 자유롭게 억지스럽지 않게 성장하길 원한다. 정원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연의 모방이다. 가드너의 존재감을 최대한 가볍게 유지함으로써 사람의 손길이 아닌 자연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그 장소에 걸맞은 자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베르사유에서의 작업 방식이 그러하다. 디자인은 베르사유와 깊게 닮아있다. 가끔은 고도의 형식미를 추구한 부분도 있는데 베르사유의 역사와 건물, 공간이 나를 그러한 방향으로 떠밀기 때문이다.

Q. 예전에 자연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나이가 들고 더 많이 배울수록 자연의 단순함에 더욱 더 끌리게 된다고 한 적이 있다.

A. 정원 문화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정원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간섭이다. 그러나 내가 자연 상태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측면은 특별히 많은 외부의

나폴레옹 1세의 묘소로 유명하지만 현재는 군사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앵발리드의 옥상 정원



©Agence Louis Benech



GDF 수에즈(GDF Suez)의 파리 본사 정원.
GDF 수에즈의 본사 건물이 된 수웨 저택(hôtel Suchet)은
공상적 계획안으로 유명한 18세기의 프랑스 건축가
에티엔느 루이 블레에의 작품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다.
루이 비네쉬는 블레에의 유토피아를 환기하도록 정원을 설계했다.
본사 건물의 회장실에서 타원형의 중앙 못은
완벽한 원형으로 보인다.

©Eric Sander

도움 없이도 생물이 스스로 생존해 나간다는 점이다.
자연을 모방할 수 있다면 외부 의존성이 가능한 최소
화 된 정원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 나는 자연을 무척
사랑한다.

**Q. 마지막으로, 서울에서의 프로젝트 경험은 어땠
는가?**

A. 그것은 처음부터 좀 괴상funny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설계자가 심을 수 있는 식물의 수와 종류가
규정되어 있었다. 나는 정해진 수만큼의 상록수를 심
어야 했고, 정해진 수만큼 활엽수를 포함해야 했다. 나
는 그저 단 한 그루의 나무를 놓고 싶었을 뿐인데 규
정에 따르자니 지나치게 많은 나무를 우겨넣어야 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더 많은 나무를 심
어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결국
다 죽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 프로젝트 대상지는 건
물 사이에 깊숙이 파고든 공간이어서 빛의 양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교목을 식재하는 것이
불합리했음에도 규정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넌센스가
존재했다.

결론적으로 서울에서의 작업은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
니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뜻을 펼 수 없었다. 식물이
기운차게 자랄 수 없는 공간을 설계하도록 디자이너에
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물론 그러한 법
규정에는 어떤 특정한 어바니즘적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 그 자체는 매우 지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치적인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사실 한국
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다. 프랑스에도 때에 따라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규정들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분위기를 간직한 샤토 도(château d'Ô)의 정원.
잔디 평원, 채소 정원, 담장이 있는 과수원으로 이루어졌다.



©Eric Sander